

슬기로운 기후변화 탐구생활

-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편 -





사진보니 사라진 빙하

IPCC 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,
인간활동으로 기후가 변한 것이 밝혀져...

기후변화로 열대야가 늘어나...



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정리한 건 없을까??



그래서 탄생하였습니다!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!



이름

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

나이

2011년부터 5년 주기로 발간

특징1

★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★
기후변화 연구 내용 집대성

특징2

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
지원을 위해 발간



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IPCC 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,
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했어~
실무그룹 1 내용인 **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는 기상청**이,
실무그룹 2 내용인 **영향과 적응은 환경부**가 담당하여 작성했어

**IPCC
평가보고서**

실무그룹1

기후변화의
과학적 근거

실무그룹2

기후변화의 영향,
적응 및 취약성

실무그룹3

기후변화 완화

**한국
기후변화
평가보고서**



기상청

기후변화의
과학적 근거
(실무그룹1)



환경부

기후변화의
영향 및 적응
(실무그룹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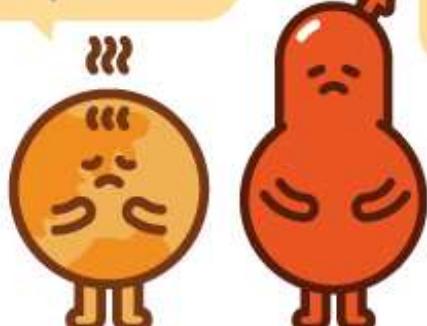
기후변화 탐지 및 한반도 기상재해의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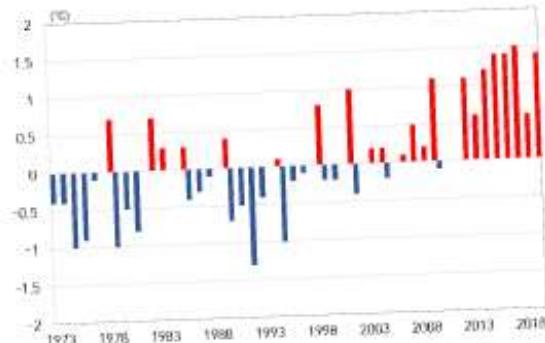
그럼 보고서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테니 집중해서 보세요!

제목부터 너무
어려워 보여ㅠㅠ

힝.. 책 싫어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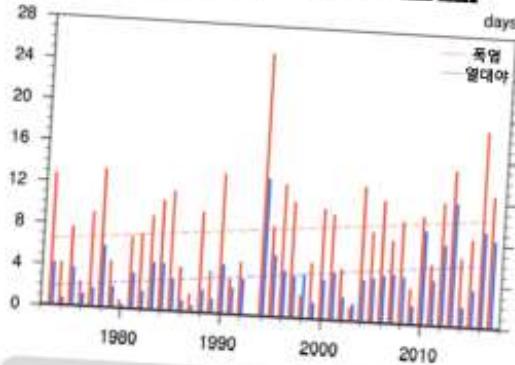


5월 평균기온 변화



5월 평균기온 1~5위가
2014년 이후에 발생

열대야와 폭염 변화



열대야와 폭염의 빈도 증가

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해보면,
기온이 상승하는 것을
알 수 있어

맞아!
오늘 5월마다
여름같이 덥더라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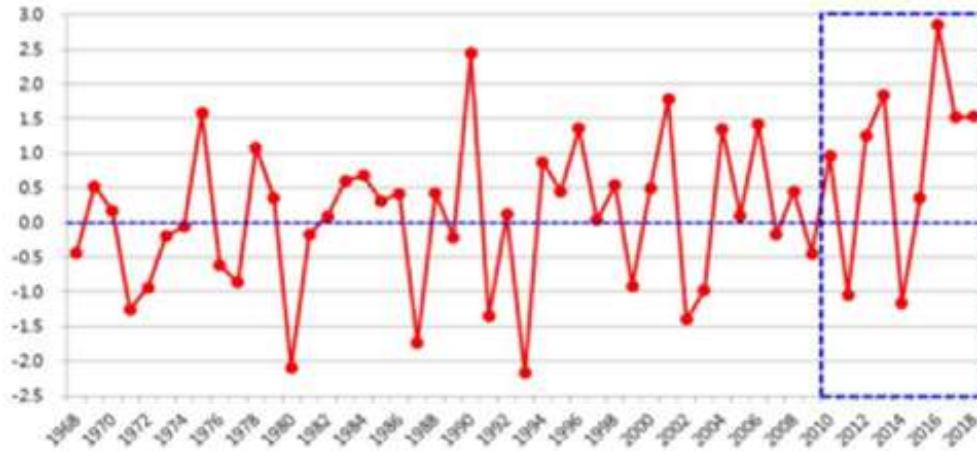


너가 화내서 기온이
올라갔나 보다 ㅋㅋ

나 아니거든!



최근 50년간 8월 표층 수온 변화 경향



우리나라 주변 해양의
수온이랑 해수면이 높아지고,
바다가 산성화되고 있어!

그래?
다른 곳보다는
그래도 괜찮지?

아니.. 전지구에 비해
우리나라 변화율이 더 커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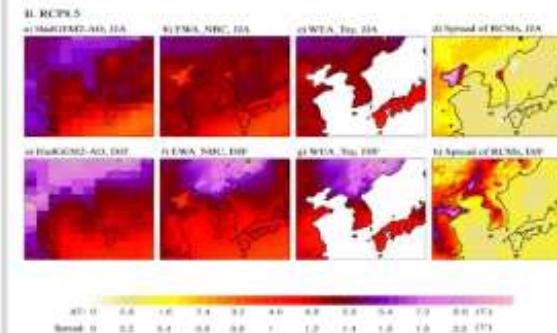
이런 변화는 이산화탄소 증가 때문이야!
화석연료 연소와 토지이용 변화로
이산화탄소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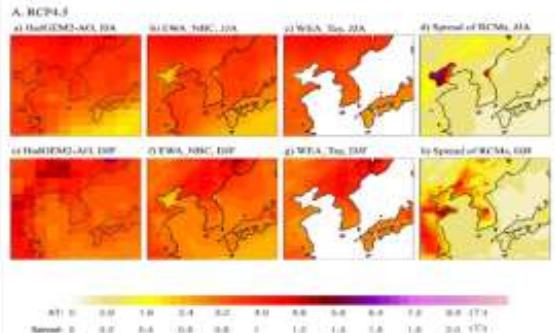
지구한테 사과하고 와!

동아시아 기온 미래 전망

RCP8.5



RCP4.5



이대로 이산화탄소를 지금처럼 배출한다면(RCP8.5),
한반도 평균기온은 지금보다 4°C 넘게 올라갈 거야!!



우리가 노력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히 줄인다고
해도(RCP4.5), 평균기온이 2°C 이상 올라갈 거야!



우리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보자!

*RCP(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, 대표농도경로) 시나리오: IPCC 5차 평가보고서에서 인간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복사강제력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정하였으며 RCP2.6/4.5/6.0/8.5 시나리오가 있음



이론을 알았으니 실천을 해볼까요?
오늘부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해보아요~

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기후정보포털(www.climate.go.kr)
▶ 열린마당▶발간물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!

심화과정



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연구 결과의
불확실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,
연구결과의 신뢰도를 3단계로 제시했어~

이산화탄소 증가, 봄철 이상고온의 변화, 해양 수온 상승,
해양 산성화, 미래 기온 상승과 관련한 연구 결과는
견고한 등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 꼭 알아둬야겠지?



연구결과의 신뢰도 평가(동의수준) 구분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01
동의수준
견고 | 관련 분야 논문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
없이 일치되는 경우 혹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|
| 02
동의수준
중간 | 논문의 수가 어느 정도 되지만 소수의견 등으로 증거를 판단하기
어렵거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소수이지만 다른 의견 있는 경우 |
| 03
동의수준
제한적 | 논문의 수가 아주 적거나 논문의 내용 혹은 전문가 사이에서도
의견이 서로 달라서 신뢰도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 |